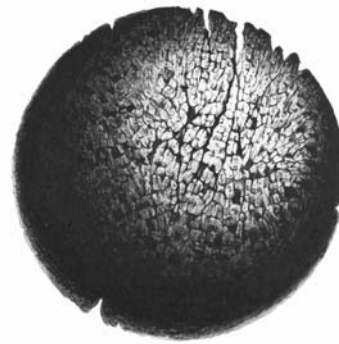




◀20일 은암미술관에서 만난 신창운 작가가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해보고 있다.



'흔적'



“노동현장에서 찾았던 성찰의 흔적들 담았죠”

부유하는 형체, 이글이글 타오르는 심장, 명품 로고들... 화려한 색조로 표현했던 2년 전 욕망의 덩어리들은 어디로 갔을까. 2년 전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청년작가에 선정돼 전시를 가졌던 당시 작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익숙한 아이콘들이 붙겨진 숏컷처럼 빛을 잃은 모노톤으로 거칠게 표현돼 있다. 20일 전시 개막식을 앞두고 은암미술관에서 만난 작가는 이번 전시 '흔적' 연작들에 대해 "결국엔 사라질 걸 알면서도 불처럼 일어나는 강렬한 욕망의 잔흔"이라고 설명했다.

신창운 작가, 28일까지 은암미술관 초대전 불타올라 바스라 진 욕망의 잔흔 작품으로

전시장의 이번 작품들은 특이하다. 작품들은 먹과 아크릴, 그리고 칠링콜로 만든 붓을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모두 미공개된 숏 작업과 회화 작품들이다. 불가마사우나에서 2년 동안 장작을 쌓아 불을 지피는 화부로 일했던 작가는 극한의 고온을 견디며 땀 흘리는 동안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제작한 작품들에 타남은 숏의 바스라진 것 같은 질감을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미술관 1층 입구에서 맨 먼저 관객을 맞는 여성의 입술은 색사한 듯 보이며 권력을 가진 이의 절대적인 언어를 표현한다.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누구에게서 나오느냐에 따라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이 사라질 수 있죠." 인도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작가는 타지마할을 건축한 사자한의 예를 들며 사자한의 명령으로 거행됐던 인부들의 참혹한 희생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 아니겠는가 반문했다. 맑은 편엔 서로 전혀 다른 대비를 이루는 여성의 누드가 보인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 같은 여인의 몸과 마네킹 같은 완벽한(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인의 몸이다. "여성의 몸은 생산력과 관련되는데, 사회가 요구하는 몸이 다릅니다. 요즘 시대에 불을 지피는 여성의 몸은 무조건 날씬하길 강요합니다. 사회에서 강제한 몸이죠. 선사시대때 요구했던 다산의 상징인 몸과 향락문화 속 요즘의 몸을 통해 각각의 몸에 대한 성찰을 하길 바랍니다." 종교 이야기를 담은 복 없는 불상 또한 눈길어 간다. "종교인 중에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허위가 많죠. 절대화, 권력화된 건 언제든 부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작업형식은 새로웠지만 작가의 줄기는 한결같다. 사회의 아픈 모습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고독한 자신을 위로하는 기도이자 자신과의 대화다. 그는 시간을 거스르고 시대를 통찰해 인간의 욕망을 추출해 낸다. 화려하게 불타올랐던 욕망의 상념들이 바스라진 후 남은 공허한 실체에 대한 집

요한 사유의 결과물. 하루 하루 일기를 쓰듯 그려왔던 '흔적' 연작을 통해 인간의 욕망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는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 관찰하는 사람일 겁니다. 일상에 쫓겨 인생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놓치고 있는 성찰을 그림으로 보여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싶어요."

채종기 은암미술관장은 "신창운 작가는 그동안 다양한 매체실험을 통해 흑독한 역사의 아픔과 회한을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 애써왔다"며 "그의 창작의 집요함과 삶에 대한 성실함이 많은 것을 생각해 했다. 그의 미공개 작품을 우리 미술관에 발표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신창운 작가는 예술가로서는 흔치 않게 인문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고 인도로 유학을 다녀왔다. 광주신세계 미술상,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 청년작가상, 광주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6년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청년작가'로 선정되어 대규모 초대전을 개최했다. 1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미술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문의 062-231-5299.

/이연수 기자

‘동네방네 마을미디어교육’ 시작 광주센터, 교육·멘토링·워크숍 거쳐 발표회

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이 '동네방네 마을미디어교육' 수업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19일, 광산마을라디오를 운영하는 10명의 주부들이 마을방송국 개국을 목표로 기획 회의를 진행했다. 마을방송의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점단 2동 주민 센터에서 열리는 '동네방네 미디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센터는 주민 스스로 마을 방송을 제작해 이슈를 공유하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광산마을공동체를 비롯한 7개 단체(봉다리

마을방송국·완주주민방송씨씨씨·영상문화놀이터목정·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동조합이공·서구청소년 문화의 집)를 선정했다.

선정된 단체 및 주민은 마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영상과 라디오 등 15차시 이상의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마을 방송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워크숍과 멘토링 등 지속적인 제작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센터는 마을을 주제로 라디오, 영화, 광고, UCC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한 여름 밤의 야의 영상제, 보이는 라디오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보람 기자



순천만서 23일 평화사랑 전국 그림그리기 대회

(사)세계여성평화그림광주전남지부(IWPG, 순천지부장 이영희)는 '평화야 친구하자!' 라는 주제로 제1회 평화사랑 전국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순천만국가정원 현충정원에서 열리는 대회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주제는 한반도 전쟁종식, 한반도 평화통일, 나라사랑, 평화사랑 및 무기근절이며, 최우수상에 장학금 각 30만원(고등부), 20만원(중등부), 10만원(초등부), 우수상 초·중·고 각 2명(상품권 5만원), 입선 초·중·고 총 10명(상품권

1만원)에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별도로 지역 특별상에는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까지 마감되며, 참가신청은 무료다.

IWPG 윤현숙 본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의 역사 의식을 일깨우고 평화문화 전파를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IWPG 광주전남지부는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과 함께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약 체결추진 천만서명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문의 061-727-6105.

/이연수 기자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